전영애의 '여백서원에서'



판도라는 없는 세상

시간도 거리도 아득한 1806년 예나-아우어슈테트에 서 나폴레옹이 이겨 프로이센을 장악하면서 천년 가까 이, 때로는 유명무실하게 이어져 오던 신성로마제국이 붕괴되었다. 전장에 인접한 괴테의 도시 바이마르가 입은 피해는 컸다. 이 난세의 혼돈 속에서 1807년과 1808년 두차례에 걸쳐 괴테의 드라마 '판도라'는 집필 되는데 1막만 쓰이고 미완성에 그쳤다.

드라마 '판도라'는 제목이 판도라인데, 판도라가 등 장하지 않는다. 판도라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의 이야 기를 매우 고전적인 언어와 형식에 담고 있다. 판도라 는 에피메테우스의 이미 떠나버린 아내로 남은 사람들 의 대화에서만 언급된다. 그로 인해 작품 전반에 두드 러지는 것은 무언가를 잃고 없이 지내는 고통스러운 감 정이고, 작품의 중심은 '판도라'가 아니라 판도라가 돌 아오리라는 '기대'가 된다. 현대극 '고도를 기다리며' 에서 고도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오지도 않지만 그래 도 기다린다고는 한다. 있다가 떠나버렸다는 판도라에 는 "기다리며"라는 술어조차 없다. 판도라는 그냥 더 이 상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고전적인 작품임에도, 극렬하게 현대적이다.

언어와 형식이 고전적이고, 주요 인물들도 신화에서 취했으나, 괴테는 많은 변형을 가했다.아내를 잃은 에 피메테우스와 그의 형 프로메테우스는 그대로 등장한 다. 성년이 되었어도 아직 자신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어린 백성들인 그 자녀들이 새롭

게 등장한다. 신화 속 판도라는 '모든 선물/재능을 받 은'여인이지만, 괴테는 모든 것을 '주는' 여인에다 무 게를 실었다. 그리고 비밀에 찬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 온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허겁지겁 뒤쫓는 '공 중의 상', 즉 '허상'이다.

또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에게 괴테는 '엘포레〈희 망〉'과 '에피멜레이아 〈근심〉'이라는 두 딸을 만들어 준다. 엘포레는 판도라가 데리고 떠났으나 가끔씩 모 습이 붙잡히지 않는 채로 아버지를 찾아오고, 에피멜 레이아는 아버지 곁에 머문다.

신화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프로메테우스-에피메 테우스의 대립되는 성격, 또 그들로 대변되는 부모 세 대와 신화에는 없는 그 자식들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의 차이도 보이고, 그 밖에도 양치기와 어부 군상처럼 다 양한 기본적 삶의 형식들도 대비된다.

한편, '나중에 생각하는 자'에피메테우스와 '먼저 생각하는 자' 프로메테우스는 신화에서나 서구에서의 오랜 해석에서나 서로 대립적이다. 각기 '성찰적인삶 (vita contemplativa)'과 '행동하는 삶(vita activa)을 구현하는 인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괴 테에게서 둘의 대립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세계는 대장장이들, 전사들의 세계로 확대되어 있고, 반면 에피메테우스의 세계는 양치기들 의 세계이며, 예술이 시작되는 지점도 있다. 그런데 프 로메테우스 추종자들, 즉 힘 있는 사람들이 판도라를

통해서 힘을 잃고 행동을 잃는다고 한다. 힘 있던 사람 들이 포도주 짜는 이가 되고 물고기 잡는 이가 되고 양 치기가 된다. 아름다움, 평온, 경건, 안식일 같은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다양한 인간 현존 형식이 다양한 해 석, 그리고 다양한 형식에까지 담겨 있다.

성찰과 행동이든, 이상과 현실이든, 대립적인 세계 관이든,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심히 어긋나는 삶 의 형식, 그 양극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닥치는 위험 은 괴테에게도 주요 테마의 하나였으며, 독자는 궁극 적으로 이 두 영역을 제대로 합치기를 권유 받는 느낌 일 뿐, '어떻게'는 마냥 분명하지 않다. (작품도 미완성 이다.) 어쩌다 다가와 어렴풋이 떠도는 희망이 있을 뿐, 늘 곁에 있는 건 근심이다.

이 극단이 유기적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괴테는 양극 의 상승이라 했고, 괴테를 잘 읽은 헤겔은 정·반 다음의 '합(合)'이라고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양 극단이 어 쩌면 세상의 본 모습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감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의 이야기로부터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된다는 건 그래도, 그 분열과 위험을 눈안에 담고(외면하지 않 고), 그 가운데 어딘가에서 중심을 잡으며 어떻게든 파 국은 막아가며 살아 보겠다는 뜻일 게다, 판도라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의료칼럼

고영춘 광주기독병원 의료부장 호흡기내과 전문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가을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이다. 낮과 밤의 큰 일교차, 건조한 공기, 미세먼지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호흡기 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기도가 건조해지고 면역력 이 떨어지면 감기와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 환(COPD) 등이 악화될 수 있으며, 고령자나 만성질 환자의 경우 단순한 감기라도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호흡기 질환은 악화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

다음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기온 변화가 부르는 호흡기 질환이다. 가을에 는 기온의 변화가 크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기관지 점 막이 약해지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진다. 찬 공기를

가을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방법

들이마시면 기도는 수축하고 점액 분비가 늘어나 기침 ·가래가 심해진다. 특히 천식이나 COPD 환자는 갑작 스러운 기온 변화만으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매 년 이 시기에 응급실을 찾는 고령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이다.

둘째,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가 필요하다. 목 과 가슴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할 때 목도리나 마스크를 착용하면 찬 공기가 바로 기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마른 기도가 회복되고 순환이 촉진된다. 잠자리에서는 얇은 이불 여러 겹보다 체온을 유지해 주 는 보온을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옷차림 하나로 기침과 가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과 적정 습도 유지이다. 가을에는 습도가 떨어져 점액이 끈적해지고 세균이 달라붙기 쉽 다. 하루 6~8잔 이상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실내 습도 를 40~60%로 유지하는게 좋다. 가습기 사용이 어렵다 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실내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뜻한 생강차, 유자차 등은 점막을 보 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과 면역력 유지가 중요하다. 규 칙적인 운동은 폐활량 증가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높인 다. 매일 30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충분하다. 단,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찬 바람이 강한 날은 실내 운동이 더 안전하다. 또한 면역력을 위해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과로하지 않기를 실천하기를 권한다. 몸이 지치지 않아야 호흡기도 건강해진다.

다섯째, 제철 식단과 예방접종의 힘이다. 가을 제철 식품인 배·유자·도라지·생강 등은 기침을 완화하고 기 관지 점막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감염을 예방 한다. 또한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고령자와 만 성질환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가장 확실한 '호흡기 지킴이'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접종 시 기를 의료진과 상의하길 바란다.

찬바람이 불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든다. 하지만 건강은 멈추지 않고 스스로 챙기는 사람의 몫이다. 거 창한 치료보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한

따뜻한 옷차림,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예방접종.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한다면 이 번 가을, 기침 대신 미소가 함께하는 건강한 계절이 될 것이다.

호흡기 건강,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든다.

기 고



켄텍과 함께 나주를 인공태양 중심지로



박진호 켄텍(KENTECH) 총장 직무대행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무 탄소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를 넘어 그 이후를 책임질 궁극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인공태 양(핵융합) 기술의 연구와 투자가 전례 없이 활성화되 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혁신성장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KENTECH·켄텍)를 설립했고, 켄텍은 미래 에너 지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핵융합은 켄텍이 중점적으로 다루 는 미래 에너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해법이자 자원 고갈 걱정이 없는 최적의 대안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핵융합의 잠재력이 공공 부문을 넘 어 민간 시장을 폭발적으로 이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핵융합 스타트업에 총 누 적 97.66억 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민간 및 공공 자금이 투자됐으며, 2025년 7월까지 최근 12개월간 약 26.4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연구와 투자가 빠르게 가 속화되는 분위기다.

한국 역시 KSTAR를 통해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핵융합 선도국의 입지를 다져왔 다. 그러나 핵융합 발전의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는 플라즈마 연구를 넘어 연료주기, 핵융합 재료, 동력 변환 등 핵융합로 공학 분야의 기술 자립이 필수적이 다. 핵융합로 공학 분야에 대한 현재 국내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도 취약하여 국가 적 공백 기술로 남아 있다.

핵융합 첨단 연구인프라의 나주 유치는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핵융합 로드맵 상 가장 취약한 고리를 해소하고 2050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 결정이 될 것이다.

나주는 이미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중 심으로 한국전력 본사, 켄텍,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핵심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K-에너지밸 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는 핵융 합로 공학 기술 개발을 위한 최적의 산학연 협력 환경 을 제공할 것이다.

또 전남의 금속, 화학,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중공업 및 플랜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융합 로 진공용기, 초전도 자석 구조물, 증식 블랑켓 등 초대 형·초정밀 핵심 부품 제작 역량으로 직결된다.

핵융합 연구는 단순한 핵융합 및 원자력 공학자 이외 에도 전기, 기계, 재료 등 공학 전 분야에 걸친 고급 인 재를 필요로 하는 거대 종합 과학 분야다. 전남은 켄텍 과 GIST 같은 과기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원자력공 학 등 유관 전공학과 외에도 폭넓은 이공계 대학을 보 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광역적 인력 선순환 시 스템 구축에 최적화됐다.

특히 켄텍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서 핵융합로 8대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자석 기술과 핵융 합 플라즈마 가열 및 전류구동 기술 분야에서 이미 강 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켄텍은 오는 2028년까지 총 498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인 초전 도자석 시험설비(SUCCEX) 사업을 한국핵융합에너 지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와 전남도는 핵융합 핵심 연구 인프라 시설 유치를 위해 최소 부지 요건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지 를 확보하여 연구시설의 장기적·지속적인 이용 가능 성을 보장하고 있다. 핵융합 연구의 가속화, 핵융합 연계 산업 활성화,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지 제공을 넘 어 나주시와 전남도를 대한민국과 세계 핵융합 연구 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지자체 의지의 반영

나주에 유치되는 인공태양 연구인프라는 대한민국 이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 전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 장 확실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 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전남 나주는 그 결실을 가장 빠르게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준비를 마쳤다.

社說

지역자원 융합해 K관광시대 전남이 선도하길

확산하고 있다. 관광도 예외가 아니어서 '케데헌'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기 점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K 관광 시대'가 만개하고 있다고 할 만 하다. 그렇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 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만 몰리면서 지 역에선 'K 관광'의 열풍을 감지하기 힘들

단체 관광 대신 개별 관광을 선호하는 트렌드 속에 지방을 찾는 외국인들도 있 지만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K 관광'의 온기를 느끼기가 어렵다.

지난 4일 순천에서 열린 전남관광개발 포럼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자리 였다. 전문가들은 전남이 가진 2000여개 의 섬과 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 자원 을 활용해 전남이 K 관광시대를 선도해 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화쟁명식 제안이 쏟아졌다. 전남이 가진 고유 콘텐츠를 K팝·K드라마 등 K 콘텐츠와 접목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이

'K'로 상징되는 한류가 사회 전 분야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남 각 시·군이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 고 전남을 넘어 경남과 부산 등 남해안 권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관광권을 설정 해 공동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큰 틀의 제 안부터 무안국제공항의 역할 재정립 같 은 인프라 문제,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감 동과 환대의 치유 체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아이디어까지 다양

> 관광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는 단비와도 같다. 단적인 예로 '한달 살기'는 생활인 구의 증가를 가져와 골목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관광 패러다임이 소규모 맞춤형 체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이 가진 콘텐츠를 누가,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 누가는 어차피 공무원이 돼야 하고 어 떻게는 민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지역 이 가진 콘텐츠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플랜을 세운다면 전남이 K 관광 을 선도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동구 매립장 테마파크 추진 뭐가 그리 급한가

광주시 동구가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 를 친환경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침 출수 처리시설을 철거하기로 한 것은 아 무리 봐도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동구는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 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친환경 가족중심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850억원을 들여 매립장 부지를 흙으로 덮고 나무를 심어 공원화 한 뒤 에너지홍보관과 스마 트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을 철거할 계획이다.

동구는 매립이 종료된지 14년이 지났 고 4개월 동안 침출수 수질검사를 한 결 과 법적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사업 을 강행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환경안전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도 매일 300~400 t 의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침출수 원수를 그대로 하수관로로 쏟아낼 경우 환경오염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매립장 부지가 계곡형 지형 으로 빗물 유입이 많은 만큼 계절별 변화 를 감안해 최소 1년 이상은 침출수를 관 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폐 기물관리법상 매립장은 폐쇄 신고 수리 후에도 30년간 사후관리 대상인데 소태 동 매립장은 아직 폐쇄 신고도 안 된 상태

사정이 이런데도 테마파크 사업을 강행 하는 이유는 뭔가. 모든 일은 합법적인 절 차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 다. 하물며 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이 법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추진된다면 어떻 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4개월 간의 수질검사 결과만으로는 사 업 추진의 명분이 없다. 매립장은 쓰레기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지반 침하와 오염수 확산 가능성이 상존한다.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

김희갑과 김우창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잊을 수는 2006년 김희갑 헌정음악회를 통해 인연

지난 추석, 오랜만에 TV에서 조용필의 이 노래를 접한 후 한참 동안 흥얼거렸 다. 수없이 들었고 때론 부르기도 했던 노 래의 제목이 '잊혀진 사랑' 이라는 것도 처 음 알았다. 특별한 멘트나 초대 가수도 없 이 홀로 노래하는 가왕 조용필의 콘서트 에 가면 떼창을 하며 새삼 그의 히트곡이 정말 많구나 생각하게 된다. 더불어 한 사 람이 부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장 르를 소화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놀란다.

조용필의 숱한 히트곡 은 김희갑·양인자 부부

가 만들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 울의 찻집', 'Q' 등이 모두 두 사람에게서 나왔다. 부부는 모두 400여곡의 대중가요 를작사·작곡했고, 1995년 초연후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창작 뮤지컬 '명성황 후' 삽입곡도 그들의 작품이다.

'상아의 노래' (송창식), '하얀목련' (양 희은), '타타타'(김국환), '향수'(이동 원) 등 60년 간 3000여곡을 만든 김희갑 작곡가의 음악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바람이 전하는 말'이 5일 개봉했다.

을 맺은 양희 감독은 위대한 작곡가를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고 2014년 부터 직접 부부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 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내 대표 인문학자의 이야기도 다큐멘 터리로 제작됐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의 동명의 책에서 제목을 따온 '기이한 생 각의 바다에서'다. 메가폰을 잡은 이는 김 교수의 제자인 최정단 감독. 그는 2004년 스승의 정년퇴임 출판기념회를 카메라로

찍기 시작한 후 2014년 영화사를 설립, 이번에 다큐를 제작했다. '인간 김우창'을 보여주고 싶었

다는 제자의 마음이 담긴 다큐는 21년 만 에 완성됐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두 작품 모두 한사람을 오랫동안 진득하게 응시하며 완 성시킨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한 작곡가가 완성해간 한국 대중가요사 (史)를 따라가며 함께 노래하다 보면, 어 느 새 '추억의 그시절'에 다가가 있지 않 을까. /김미은 여론매체 부장 mekim@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디 지 털 부 220-0697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진 부 220-0693

제 2 사 회 부 220-0680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환영합니다